

#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준비 '착착'

### 목포시, 부서별 추진 현황 점검 10월 1~26일 150만명 유치 목표 미식로드·주류페스타 등 홍보 K-FOOD 기업 유치·위생 등 만전



목포시는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기반시설 정비와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부서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박람회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기반시설 정비와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부서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정부가 승인한 국내 최초의 미식 산업 전문 박람회로, 오는 10월 1~26일 목포 전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슬로건은 '작연을 맞보다, 바다를 맞나다'로, 남도의 고유한 식문화를 산업화하고 세계 시장에 알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남도는 우리나라 미식의 뿌리이자 정수로, 산과 들, 깨끗한 바다와 갯벌이 키운 다양한 식재료와 고유의 손맛은 남도만의 독특한 미식 문화를 만들어 왔다. 특히 목포는 흥어삼합, 민어, 낙지 등 다양한 해산물 기반 요리와 함께, 남도 음식의 본고장으로 손꼽혀 미식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목포를 'K-미식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남도 음식의 산업화

와 식문화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남도미식로드, 주류페스타 등 주요 프로그램 구성과 전방위적 홍보 강화, K-FOOD 기업 유치 및 교통·위생·안전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람회 기간 동안 15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미식 산업 관계자들이 목포를 찾아 국내외 식음료 산업

의 교류와 네트워킹의 장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목포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각인시키고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완성도 높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진도 작은영화관에서 '특별한 시간'

### 진도아리랑시네마, 10월까지 기획전...고전·예술영화 등 다채

진도아리랑시네마가 오는 10월 31까지 매주 화요일, 토요일에 '뒤로 재생 앞으로 재생'이라는 주제로 작은영화관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전 작품을 무료로 상영해 군민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고전과 현재, 세대를 연결하는 작은영화관의 힘'이라는 기획 의도 아래 마련됐다.

또 대형 상영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명작들과 예술영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세대 간의 공감, 영화적 기억과 감성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전에는 두 개 부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고래사냥'과 '봄날은 간다', '엽기적인 그녀'

등 부모 세대의 추억을 자녀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고전영화와 '우리들', '바로 지금 여기', '길 위의 문치' 등 작품성과 메시지를 갖춘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도아리랑시네마는 관객들에게 다시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11월에 특별 상영회 기획전의 여운을 이어가고, 관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도모할 방침이다.

기획전 상영 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진도아리랑시네마 누리집(<https://jindo.scinema.kr>) 또는 진도군 누리집(<https://www.jindo.go.kr/home/main.c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낙시 관광 활성화' 조피불락 치어 방류

### 신안군, 다이아몬드 해역에 35만마리...어민 소득 증대 기대



신안군이 다이아몬드 해역에 방류한 조피불락 종자.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최근 다이아몬드 해역에 조피불락 종자 35만 마리를 추가 방류했다.

신안군은 앞서 지난 5월 말 다이아몬드 해역에 쥐노래미 종자 5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조피불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6cm 이상의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로, 다이아몬드 해역 내 어초 투하 지구에 해당 지선 어촌계(어업인)와 함께 신상 방류할 계획이다.

다이아몬드 해역은 신안군이 2022년부터 2027

년까지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입, 수산자원(쥐노래미, 조피불락) 산란·서식장으로 조성 중인 해역으로 지금까지 1027개 어초 투하와 수산 종자 95만 마리를 방류했다. 오는 10월 중에는 2025년도 분 어초 194개를 추가 투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중앙부처(해양수산부) 공모 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해 12월 중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6년도 불락류 산란·서식장 조성(50억원)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를 기다리고 있다. /신안=이성선 기자 sslee@

# 완도 전복거리, 명품 음식거리 변신

### 먹거리+관광 기반 시설 조성...요리 시식회·시설 개선 등 추진

완도군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전복을 맛볼 수 있는 전복 거리를 명품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5 완도방문의해'를 맞아 전복을 활용한 차별화된 음식문화를 육성하고 먹거리와 관광을 연계한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완도군은 전복 거리 방문의 달 운영과 전복 요리 시식회, 업소별 위생 관리 컨설팅 지원, 노후화된 시설 개선, 전철·위생 교육 등을 실시한다.

군은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완도 전복 거리를 남도 대표 음식 거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에게 전복 본고장에서 맛볼 수 있는 고품질의 음식 문화를 제공할 것"이라며 "완도 미식 관광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ng@



완도 전복 거리 전경.

# 해남군 소비쿠폰 지급률 95.4%

### 전국 평균 지급률 90%...찾아가는 신청 접수 등 성과

해남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지난달 31일 기준 9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지급률 90%, 전남 평균 89.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TF팀'을 구성해 지급을 향상에 노력해 온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해남군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6만 2367명으

로 이 중 5만 9473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급액은 총 132억 3600만원이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해남사랑상품권 지류를 충분히 확보해 오프라인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신청 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주효했다.

또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찾

아가는 신청'접수를 통해 직접 마을로 찾아가 신속하게 신청접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명현관 군수는 지난 4일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직접 사용해 생필품을 구매하고 무더위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신속한 지급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됐다"라며 "이제는 신속한 사용으로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소비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광 '대마산단 복합문화센터' 개관

영광군이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운영을 본격화했다.

영광군은 최근 '대마산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근로자 복지 향상과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총사업비 53억50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1611㎡,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했다.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1월부터 약 9

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일 정식 개관했다.

센터 1층에는 운영사무실과 기업체 회의실, 회의실, 동아리방 등을 갖췄다. 2층에는 다목적 강당, 체력 단련실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이용료는 '동아리방·회의실은 2시간 기준 1만원', '다목적 강당은 2만원(개인 2000원)'이다. 체력 단련실은 월 2만원 또는 2시간당 2000원이다. /영광=김창원 기자 kw@

##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25년 8월호

2025년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K출판 열기, 광주의 출판은?

- 문화도시 광주, 허약한 출판의 뿌리  
- 'K-출판'은 인기 상승 중, 서울국제도서전 풍경  
- 지역 출판의 세계화를 위한 제안

특집

문화 화제

여행자의 Zip단Zi성 신춘문에 '광주에서 출발한 나의 여행은 어디쯤 왔을까?'

호남의 누정시조 ②-담양 식영정

소새원·환벽당과 '일동지삼승' 불러 권력·명예 내려놓고 유유자적 자연 속 '은거의 미학'

유림 소도시 기행④

12세기 성으로 시간여행 벨기에 겐트

우리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⑦

'골프장 옆 미술관' 보성 우종미술관

조인호의 키워드로 읽는 광주 전남 미술사②

고려청자와 조선 분청사기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 ⑩

늦보다 아름다운 남도의 밤 별빛따라 한어름 夜한 여행

공간의 재발견⑤

박제민 공간 벗고 현대미술의 메카 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